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신부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신자들의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던 모범답안에 따르면 ‘기도란 하느님과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란 듣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남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성급히 판단해 본래 뜻을 왜곡한다면, 의사소통은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면, 기도라는 이름의 배는 ‘분심’의 풍랑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제1독서(1사무 3,31-10,19)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익숙하지 않던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 “저를 부르셨지요?”라고 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눈치챈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제야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그분과의 대화, 곧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배웁니다.

복음(요한 1,35-42)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인데, 안드레아는 형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그분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등장인물(세례자 요한, 그의 두 제자, 베드로)이 각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말한 것을 들으며, 듣고 본 것을 다른 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내용을 또 다른 이가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올바르게 듣는 것과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냅두리하거나 소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임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도 배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충분히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리마, 페루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요한 1,36)

맨발의 수도사가 절벽 위에 선 채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무거운 번민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쉬이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범주와 세상의 경계에서 고뇌합니다. 오늘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